



15일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뉴 이탈리아 디자인 2.0전'에 전시된 컨베이어벨트와 다양한 디자인 소품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금소인 미니맨' 캐릭터 입힌 주방용품 깜찍하네 '뉴 이탈리아 2.0' 세계 디자인 트렌드 한 눈에 본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최경란 총감독과 큐레이터 추천 작품 7선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15일 개막식을 갖고 11월 13일까지 3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행사는 총 5개관 4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35개국 약 4000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약 3000점을 선보인다. 이중 최경란 총감독과 전시큐레이터들이 뽑은 눈여겨보아야 할 7개 작품을 소개한다.

◇결합·분리·변형 'G.Bottle'

정수 작가와 지역업체 엘피스튜디오가 만나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을 위한 기능성 휴대용 물병이 탄생했다. 광주브랜딩전에 전시된 'G-Bottle(Gwangju Bottle)'은 U자관 모양의 용기를 결합·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휴대, 보관 등 용도에 맞는 변형으로 재미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황금 소인(小人)들의 반란 'Mini-men'

그릇·물병 등 주방용품을 작은 황금색 인간들이 점령했다. 이탈리아 스테파노 지오반노니는 젊은 디자인 그룹(쥘인스나인과 사람 형상의 캐릭터 '미니맨'으로 장식된 도자기 주방용품 '테이블웨어' 시리즈를 선보였다. 황금색과 백색의 세련된 도자기 그릇에 자리잡은 앙증맞고 친근한 미니맨들은 티백 홀더나 손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도자기에 담은 '한국의 뭉툭'

국제홍보상징관에는 도예 디자이너 이가진 작가의 청자작품 50점이 전시돼있다. 한국과 외국



지오반노니와 쥘인스나인이 협업한 '테이블웨어'



국제홍보상징관에 전시된 이가진의 청자 작품

작가 50명이 참여해 풍환적 느낌의 문양을 그려 넣었다. 이 전시관은 건축가 승효상이 소쇄원을 모티브로 공간 디자인을, 사진작가 배병우가 공간을 연출했으며 목공예가 양석중이 전시물 받침대를 제작했다. 바닥에는 바위, 계곡 등을 형상화한 선들이 삽입돼 한국정원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딱딱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루노' 의자
아시아디자인허브전이 열리는 2관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철사를 엮어놓은 듯 한 느낌의 조형물이 보인다. 이 작품은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노일훈이 출품한 작품 'Luno(루노)'다. 노씨는 탄소 섬유라는 최첨단 재료를 사용했다. 중력을 이용해 실을 늘어뜨려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면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이용해 의자를 제작했다.

◇디자인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3관 '험블 마스터피스'전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품들이 전시돼있다. 이 전시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기획한 전시로 한국의 사물을 더했다. 이데리타울(1967), 돼지저금통(1970), 커피믹스(1976) 등 친숙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상품 약 150개가 배제됐다.

◇이탈리아 디자인으로 본 디자인 트렌드

'뉴 이탈리아 디자인 2.0'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시관 중앙에 위치한 3개의 컨베이어 벨트와 그 위에 놓인 다양한 소품들이다. 흡사 '회전 초밥집'을 옮겨놓은 듯한 구조로, 한자리에 서서 그릇, 책, 물병 등 다양한 생활소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목재 의자 등 뉴 이탈리아가 추구하는 각종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신명으로 들어가는 문 '윤무'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공간조형물 '윤무'는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가 소쇄원에서 영감을 받아 대나무, 합판, 철 등으로 제작됐다. 도요 이토는 수평 평면은 건축을 의미하고 세로 대나무는 자연 현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은 '윤무'를 통해 비엔날레 입구에서 1층 전시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옛 선비들 읊었던 '소쇄원 48영' 재현



전남대 지역연구센터 17일·24일

한국의 대표적인 명승으로 꼽히는 담양 소쇄원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자연히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풍류를 즐겼다. 이곳은 소쇄공 양산보(1503~1557)가 짓기 시작해 3대에 걸쳐 완성한 원림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을 만큼 시적 정취가 넘친다. 양산보의 사돈이었던 하서 김인후(1510~1560)는 소쇄원의 48영의 풍치를 읊었던 당대의 대가다. '소쇄원 48영'은 조선조 최고 연작 서경시로 평가받는다.

소쇄원 48영을 재현하는 행사가 현장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지역연구센터(센터장 나경수 국어교육과 교수)는 오는 17일과 24일(오전 10시) 소쇄원에서 일련의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진다.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재현은 연구단 전공자(김대현, 이용식, 윤혜진, 김덕진, 이윤희 교수)들의 고증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서예가 청담 민영순이 현장에서 직접 쓰고, 남경 김영순은 낭송을 한다. 또한 정인봉, 정마리 등 정가 전공 가창자들이 시창 재현을 한다. 재현행사 책임을 맡은 나경수 교수는 "2012년 원도 세연정에서 재현했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처럼, 전통이 잔존 문화가 아니라 재생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전통문화의 전승을 통해 선조들이 즐겼던 문화를 현대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062-530-0288.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 8번째 만남

18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서 '카라바조...' 무료 강좌

무료 문화 예술기획 행사를 열고 있는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대표 심옥숙)이 8번째 만남을 마련했다. 18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

'로마 바로크 예술의 거장, 카라바조와 베르니니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카라바조와 베르니니의 걸작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르기세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병든 바쿠스',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 '아폴로와 다프네' 등 카라바조의 걸작품과 '다비드', '페르세포네의 납치' 등 베르니니의 조각작품들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심옥숙 대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가며 인문지행 회원인 장근영, 이명자씨는 각각 미술 전공자로서 회화적 시선과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 미술애호가로서 생생한 감상을 이야기한다. '인문지행'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카라바조 작 '병든 바쿠스'

CNS 윈드앙상블 연주회 17일 5·18기념문화센터

CNS 윈드앙상블(단장 한성모)제8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단원들은 백코이의 '아프리카 심포니', 베토벤의 '비창', 로드리고의 '아랑 웨즈협주곡', 피아졸라의 '리베레 탱고', 아랍

드 한의 '다코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영화 '1492'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삽입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지휘는 추선호(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씨가 맡았으며 최정숙, 허은진, 김광수, 김성진, 박해진 등 50여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문의 010-2747-4188. /김미은기자 mekim@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몸신**이다

이용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18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20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몸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